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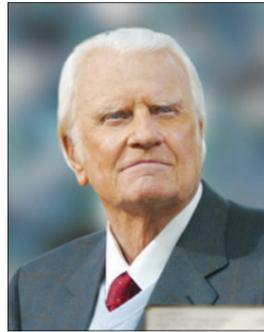
## 미국 목회자들이 손꼽는 최고의 설교자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생존해 있는 최고의 기독교 설교자는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 전문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응한 미국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

리 그레함 목사는 현재까지 전 세계 185개국 2억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91세인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자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생존하는 설교자로 찰스 스탠리, 릭 워렌, 존 맥아더, 맥스 루케이도 등의 목회자들을 꼽았고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분야 사역자들이거나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이로 이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설교자는 올해 91세의 빌리 그레함 목사로 나타났다. ©빌리그레함전도협회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02명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의 신뢰도 오차범위는 95% 수준에서, ±3.1%다.

###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0인〉

1. 빌리 그레함 (빌리그레함전도협회 설립자)
2. 찰스 스탠리 (인사이트 포 리빙 진행자)
3. 찰스 스탠리 (퍼스트 뱀티스트 처치 담임, 터치 미니스트리즈 설립자)

4. 릭 워렌 (새들백처치 담임, 기독교 작가)
  5. 존 맥아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그레이스 투 유 미니스트리 회장)
  6. 바버라 브라운 테일러 (피에몽 칼리지 종교 교사, 기독교 작가)
  7. 데이빗 제레마이아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처치 담임)
  8. 맥스 루케이도 (오크 힐스 처치 설교 사역자, 기독교 작가)
  9. 존 파이퍼 (베를렘 뱀티스트 처치 설교 사역자, 기독교 작가·변증가)
  10. 앤디 스탠리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담임, 노스 포인트 미니스트리즈 설립자)
- (순현정 기자)

### 빌리 그레함 1위... 릭 워렌, 맥스 루케이도 등 10위권

을 미친 기독교 설교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가장 많이 지명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를 꼽은 목회자는 전체의 21%로, 다음으로 많이 이름이 거론된 찰스 스탠리 목사의 세 배의 지지를 받았다. 빌리그레함전도협회 설립자인 빌

리 그레함 목사를 이어 오늘날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기독교 설교자인 찰스 R. 스탠리 목사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이며 라디오 성경 공부 사역인 인사이트 포 리빙의 진행자다. 두 사람 외에도 미국 목회

자들이 널리 알려졌다. 공통점이 있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오늘날 미국 목회자들의 성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 준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 디렉터 에드 스탠처는 말했다. 그는 “이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미국 목회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

들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설문 조사는 작년



로버트 박 선교사와 북한을 위해 기도 주간을 갖는다고 밝히는 KCC 대표간사 손인식 목사.

### KCC, 예정대로 북한 위한 기도 추진

북한 동족의 해방과 탈북자 구출을 위해 결성된 KCC(한인교회연합)가 최근 북한에서 풀

려나 미국으로 귀국한 로버트 박 선교사의 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성

경책 한권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할 편지 한 장만을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었고, 억류된 지 43일 만에 풀려났다.

KCC는 8일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도 응답으로 로버트 박 선교사가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베이징 공항에 내린 로버트 박 선교사의 모습은 눈빛을 잃은 얼굴과 고통당한 상처의 표정이 역력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취조와 고문, 세뇌를 당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 로버트 박 선교사, 북한 억류 43일만에 무사 귀환

입북한지 43일 만에 석방된 북한인권 운동가 로버트 박 선교사가 6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 도착했다.

AP통신은 낸시 캐슬즈 LAX 대변인은 박 선교사가 베이징 발 민간 항공기 편으로 이날 저녁 LAX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당분간 가족들을 만나 휴식을 취한 후, 교회활동을 해 온 애리조나 주 투산(Tucson)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LA에서 태어난 박 씨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투산에서 보냈으며 박 씨 부모는 약4년 전 투



로버트 박 선교사.

산에서 샌디에고 북쪽의 엔시니타스로 이주했다.

로버트 박 씨와 그의 부모가 함께 다니는 샌디에고 소재, 팔로마한인교회 담임 서명성 목사는 “가족들이 로버트 박 형제와 함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산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정확한 위치나 언제쯤 다시 교회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이웃이 고민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Tel: 310-808-9350 / Fax: 310-808-9353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 오바마 대통령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

4일 오전, 올해도 어김없이 국가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규모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제58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됐다.

취임 이후 두 번째 맞는 기도회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적 현장에서의 ‘정중함(civility)’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통한 겸허한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최근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전력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날 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건보 개혁안을 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있어 이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정책적 이견이 곧바로 상대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심으로 변질되는 워싱턴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냉소주의와 비판주의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워싱턴에서 정중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해 고위 관리 장성들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있었다.

그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 4일, 제 58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연설

수 있는 품격과 예의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정중함을 지키는 것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적 현장에서 정중함이 사라지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불신이 빠르게 된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은 전통적인 국가조찬기도회의 초당파적이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이같은 정중함과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형제애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같은 워싱턴 정계의 분열도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극복하기 바란다고 언급하고 “서로 이견을 갖고 토론하되,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중함의 본보기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표방하는

가치관은 다르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극도의 긴장을 기도를 통해 이겨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달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에 행한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요즘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다”며 “기도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했을 때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찬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간다 반동성애법에 대해서도 언급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는 국가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적 결혼관을 수호하려는 우간다 국가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연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

지도자들의 취지는 심분 이해하지 못하고 비인권적인 반동성애법은 옳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간다 반동성애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의 교계에서조차 반대를 사고 있다.

이는 미국 기독교 가정 운동 재단인 펠로우십 파운데이션이 우간

다 반동성애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진보 기독교 단체들과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보수적 색채의 국가조찬기도회에 합의하는 의미에서 ‘대안적’ 국가조찬기도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순현정 기자)

<1면에 이어>

또한 KCC는 “로버트 박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들어갔던 제목들을 위해 2월 14일 주일부터 예정대로 특별 기도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KCC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들을 폐쇄되도록, 북한 내 지하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중단되도록, 북한 땅에 예배 자유와 신앙자유가 허용되도록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전국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특별기도 시간을 가진다. 4월, 5월 햇빛기도회를 북미지역 주요 도시별로 개최하며, 7월 13~14일 동안 워싱턴에서 전국대회를 가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 SBC, 오바마에 아이티 선교팀 석방 노력 요청

미국 침례교 지도자들이 최근 아이티에서 교인 10명이 유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의 석

방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아이티 위한 국제적 구호 손길 약화 우려돼”

미국 최대 개신교단이자 침례교단인 남침례교회의회(SBC) 지도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엇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침례교인들의 열정은 온 마음을 다한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교인들이 인도주의적 인 목적에서 아이티 어린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으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인들이 참혹한 재난 속에서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이번 일을 했을 것이며, 또한 그랬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아이티 정부간에 사건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협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

지만, 많은 침례교인들이 현재 아이티에서 송고한 목적을 위해 현지인들을 돕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구금되어 있는 교인들의 현재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 상태에도 우려를 표한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소속 교회나 교단측에서 이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고, 이들

이 무사히 석방되어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촉구했다.

교단 언론인 벵티스트 프레스(BP)를 통해 5일 발표된 이 서한에는 SBC 회장인 조니 헌트 목사, 직전회장이자 대통령 종교 자문 담당인 프랭크 페이지 목사, 교단 실행위원장인 모리스 채프먼 목사 등 주요 지도자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지속되고 있는 교인들의 구금 상태와, 향후 실행 선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 지진 참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구호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선하

게 사용하셔서, 미국 내에서 아이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각성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힌 지도자들은, “이 사건은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꺾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적법하고, 관대하고, 온정에 넘치는 구호를 위한 우리의 열정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미국 아이다호 주 침례교회인 센트럴 밸리 처치 소속으로 아이티에 파견된 이들 10명의 선교팀은 지난달 29일, 적법 절차 없이 아이티 어린이 33명을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임시 고아원에 데려가기 위해 국경을 넘던 중 아이티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순현정 기자)

### 기록일보

편집교문: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TEL : (213) 739 - 0403  
FAX : (213) 739 - 0408  
Email: chdaily@gmail.com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

#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테이트 헤어를 **50% 할인** 드립니다  
\$200<sup>up</sup> Regular Price  
**\$100<sup>up</s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 메리큐 콘도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 탤런트 정태우,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받았다"

한국 기아대책 정태우 홍보대사가 5일 오후 7시 30분 LA 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고 간증했다.



간증하는 기아대책 정태우 홍보대사. ©이태근 기자

기아대책 홍보와 아프리카 아동의 일대일 결연을 위해 미주를 방문한 정태우 홍보대사는 이날 간증에서 "어린 나이에 교회 다닐 때 할머니로부터 교회에 가지 않으면 돈을 준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과감히 뿌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교회에 출석했다. 어머니가 저를 통해 불교신자인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바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가 되었다"고 간증했다.

또한 정태우 홍보대사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 드렸

는데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니 다 들어주셨다"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 간증했다.

한편 이날 간증 집회에서는 탤런트 김정화 씨가 일대일 아동 결연을 맺은 우간다의 한 소녀와 만난 이야기를 상영되 기아들에게 먹음양식과 복음전파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태근 기자〉

##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35주년 맞이 기념 예배

### 37명의 임직자 새롭게 세우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7일 오후 3시 30분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예배는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순복음 북미총회 회장 이용우 목사의 말씀, 교회연혁, 임직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지용덕 목사의 축사, 순복음 북미총회 총무 김훈 목사의 권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이용우 목사는 창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임직자들의 진실한 교회 섬김을 당부했다.

이 목사는 "본문의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그

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도 변화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매진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으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임직식에서는 2명의 장로와 14명의 안수집사, 21명의 권사에게 직분에 대한 안수와 임직패가 전달됐으며, 권면의 말씀을 전한 김훈 목사는 "인생의 2/3는 일상적인 세상살이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남은 1/3은 순전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라며 "남은 1/3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임직자들에게 대한 임직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태근 기자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1975년 1월 19일 순복음상향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으며, 동년 5월 19일 순복음나성교회로 개명했다. 현 위치의 성전에는 1991년

년 임당했으며 진유철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서리로 임명된 후인 2007년 4월 1일 취임했다.

〈이태근 기자〉

## 우리 아이는 마약, 게임중독에 관계없다?

### 한인가정상담소, 마약중독 한인 청소년 2세가 대부분

'건강한 청소년, 부모에게 달려 있다!'

'우리 아이만은 아닐 꺼야, 우리 아이는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약, 게임중독 문제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고 한인가정상담소는 주장했다.

마약 및 알콜 관련 전문치료기관 AADAP 로렌 리 카운슬러는 "마약에 중독된 비율을 보면 한인 청소년 1.5세보다 2세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분별력이 없이 쉽게 나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마약이 중독됐는지는 자녀가 본인을 컨트롤하지 못하

나, 마약구입을 위해 절도, 폭력 등 극단적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부모님들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 항상 마약, 게임 중독 등의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 〈마약중독 회복위해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해야〉

"마약에 중독된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온 가족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로렌 리 카운슬러는 "단기간보다 1년 이상 장기간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중독 회복이 되려면 중독된 청소년에게 법적인 조치를 가해야 할 때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나, 또 하나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마약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마약중독 자녀, 부끄러움보다

### 적극 대처를〉

보통 자신의 자녀가 마약이나 인터넷, 게임중독이 된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이나 부끄러움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며 로렌 리 카운슬러는 자녀의 인성보다 미국의 청소년 문화 현실이나 빠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3회에 걸쳐 건강한 청소년 프로그램 학부모 기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2월 18일(목) 오후7시~8시40분-한인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최대의 적 마약 및 약물 남용'

3월 11일(목) 오후7시~8시40분-청소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무엇이 문제일까.'

4월 25일(목) 오후7시~8시40분-청소년 문제 이제는 부모가 함께 해결할 때입니다.'

장소: 3727 W. 6th Street, Suite 320 Los Angeles, CA 90036  
문의: 213 389-6755

〈지재일 기자〉



한인가정상담소는 9일 건강한 청소년 프로그램 학부모 기획 워크숍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카니 조, 크리스틴 김, 로렌 리.

## “건강 체크 하며 행복한 이민생활 누려요”

### UCLA 공중보건대와 존슨 종합 암 센터, 무료건강검진 실시

UCLA 공중보건대와 존슨 종합 암 센터가 오는 14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남가주리더교회 줄리아홀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역 섬김 차원에서 개최되는 건강검진은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혈압, 콜레스테롤, 심박수 등을 진료 받을 수 있다.

행사를 후원하는 남가주리더교회 김요섭 목사는 "UCLA 공중보건대와 존슨 종합 암 센터가 한인 건강 생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많은 한인 교포들이 오셔서 건강 체크도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리더교회회는 지역 섬김 차원에서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213) 215-8523  
주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정        | 학과                       | 이수과정                        | 지원 자격   |
|-----------|--------------------------|-----------------------------|---|
| 신학부       | 신학과<br>기독교신학과<br>기독교상담학과 | (4학년) 8학기<br>1년 4학기까지<br>가능 |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br>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           |                          | (2학년) 4학기<br>1년 4학기까지<br>가능 |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br>-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br>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
| 신대원<br>전문 | 신학과<br>기독교신학과<br>기독교상담학과 | (3학년) 6학기<br>1년 4학기까지<br>가능 |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br>편입학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 FCBH, 아이티 위해 오디오 성경 지원 호소

## 아이티 피해자위해 프랑스로 오디오 성경 지원해

“많은 목회자, 성직자들이 지진으로 사망했습니다.” - 아이티의 한 사역자.

“사람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교회를 피난처 삼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긴급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1월 아이티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인근,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후 구조단체들과 크리스천 미니스트리들, 긴급 구호단체들이 과연 아이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동시에 각 크리스천 구호단체들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이티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아이티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양식과 의료 지원을 넘어 그들의 영혼을 구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Faith Comes By Hearing(이하 FCBH)은 아이티에 있는 한 단체로부터 전화로 오디오 성경 지원을 요구받았다. 이에 FCBH는 600여 아이티인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지원했다. 오디오 성경은 외부의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태양열로 작동이 되는 것이다. 오디오 성경들은 다른 구호팀들에 의해 아이티에 전달됐으며 성경과 함께 음식과 물, 의료 약품들도 함께 전달됐다. 오디오 성경은 아이티의 목회자들, 의료팀, 구호 캠프들에 지원됐다. “오디오 성경은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의료팀과 긴급 구조팀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아

주 전략적인 장소로 보내졌다”고 FCBH 구호팀 대변인 존 윌키(Jon Wilke)가 전했다.

FCBH는 비영리 기독교단체로서, 긴급 재난시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오디오 성경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긴급구조팀은 ‘Convoy of Hope’다. Convoy of Hope는 가난한 나라의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제공한다. 단체는 112개국 약3억여 명에게 음식과 생수를 공급했다. 또한 미국 크리스천의 사들도 FCBH 구호팀에 동원돼, 의료 구호팀의 필요를 도우며 내과 의사들은 아이티 피해자들은 진료할 때 오디오 성경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만약 내 집과 가족, 이웃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상상

할 수 없이 어려울 것입니다.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죽음의 고통을 당한 아이티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시고 항상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Faith Comes By Hearing은 152개국 이상, 409가지 언어로 오디오 성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티의 각 교회, 긴급구조팀을 위해 오디오 성경을 지원한다. 문의는 800-545-6552 / Haiti@FaithComesByHearing.com으로 하면 된다.

(지재일 기자)



미주성결교회 엘에이 지방회 새임원들(왼쪽부터 부서기 조성호 목사, 목사 부회장 박성민 목사, 회장 김수철 목사, 직전회장 이종길 목사, 서기 김희창 목사, 부회계 김승욱 장로)

## 미주성결교회, 엘에이 지방회 열려

미주성결교회 제31회 엘에이 지방회가 8일 오후 4시 나성성결교회(김호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지방회는 지방회 부회장 김수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회에서는 신규 임원 교체 및 신안건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신임회장으로는 소중환사람들 김수철 목사, 목사 부회장으로는 박성민 목사, 서기로 말씀새로움교회 김희창 목사 등이 선출됐다. 신안건으로 지방회는 제31회 미주성결교회 총회를 유치키로 했다.

(이태근 기자)

## ‘미주 한인 역사 새롭게 알게됐어요’

### 미주체험학교 학생들, 대한민국민회관 투어



▲ 미주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김성렬 장로부터 이민사를 듣고 있다. ©이태근 기자

미주체험을 위해 엘에이를 방문한 한국 청소년 50여명이 지난 6일 오전 9시 대한민국민회관을 방문했다. 청소년들은 6기 미주체험학교 참여자들로 미주 한인역사를 알기 위해 방문했다.

학생들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본당 옆에 위치해 있는 대한인국민회관에서 이민역사와 미주에서 활동한 독립투사들의 활동 등을 전해들었다. 미주체험학교에 참여한 김여진(16세)학생은 “이민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알게 되어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됐고, 새로

운 것을 알아 기쁘다”고 전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을 위해 역사가 깊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찾았다. 학생들이 방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15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USC, UCLA, UC 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대학과 LA 시청을 견학한다. 또 그랜드캐년 또는 샌프란시스코를 관광하며 멕시코 일일선교에도 나선다.

(이태근 기자)

## 21세기에는 말씀, 섬김, 교육 통전적 선교 이뤄져야

케리그마(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 선교 훈련을 목표로한 제1회 글로벌 비전 스쿨이 글로벌 비전 बैं크와 미주성산교회 주최로 6일부터 7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 전략과 비전에 대해 공유한 글로벌 비전 스쿨은 표세홍 목사(글로벌 비전 बैं크 상임대표), 윤상운 목사(글로벌 비

원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섰다.

‘21세기 최대 선교지 미합중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한 표세홍 목사는 “미국은 현재 지혜의 ‘In God We Trust’와 국기에 대한 경례시, ‘All Nations Under God’ 문구를 빼자는 재판이 이뤄질 정도로 기독교 핍박 국가로 전락했다”며, “세계 각국의 비기독교인들의 미국 이민 정착으로 기독교

거듭 강조한 표 목사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 공립학교 내 기도과 성경공부가 사라진 후 청소년 불신자가 51%를 넘어선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와 복음전파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소 선교사는 ‘왜 글로벌 비전 बैं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했다. 이 선교사는 “현 시

드러커의 이노베이션의 조건 중)며 “교회와 선교비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현실 가운데, 글로벌 비전 बैं크는 교회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선교의 원형을 삶 속에서 구체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한 방동섭 목사는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하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를 강조했다. 방 목사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편으로 치우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선교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선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케리그마적 사역(말씀선포)’, 병을 고치는 ‘디아코니아적 사역(섬김과 봉사)’, 제자를 훈련하는 ‘디다케적 사역(가르침과 훈련)’이 분리되지 않은 통전적 선교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 목사는 “21세기의 선교는 통전적인 선교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을 따라 지구촌 각계각층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 선포, 가르침 사역, 사회적 봉사를 포함하는 선교 책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 미주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김성렬 장로부터 이민사를 듣고 있다. ©이태근 기자

전 बैं크 상임이사), 이길소 선교사(글로벌 비전 बैं크 대표이사), 방동섭 목사(글로벌 비전 बैं크 공동대표) 등 글로벌 비전 बैं크 임

정신이 쇠퇴하고 다종교적 혼합 종교관이 교회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최대의 선교지”라고

대는 모든 영역이 통합되고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지구촌이 하나로 움직이는 글로벌 시대로 특징되고 있다”(피터

# 아이티 지하수 개발 위한 후원 교회 모집

모든 재난에는 당장 의식주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SWIM 선교회가 물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 정수기 제작, 야외 화장실 짓기, 공중위생 보건 교육, 펌프 수리와 같이 물과 관련된 사역을 약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재난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할 동역 교회, 단체, 개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SWIM 선교회 대표 임영호 드림



연락처 (714) 403-2121 임영호, 웹사이트 www.swim-usa.org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 차 대접에 도우미 자청... 돌아온 건 '종교편향' 비난

#### 개정 공직선거법에 교회 내 투표소 설치 제한 조항 포함

‘교각살우(矯角殺牛)’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로, 문제가 되는 작은 부분에 연연한 나머지 문제가 되지 않는 큰 것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이다.

지난달 25일 개정 공표된 공직선거법에 교회 내 투표소 설치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147조제4항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희성 서강대 명예교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가 약용되어 지속적으로 일부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종교자유와 종교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가능’이라는 지침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 분안 심사에 올라가 있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한 확인이 위헌으로 판결되어 교회 등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는 단서 조항까지 폐지되게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종교자유와 종교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는 이러한 종자연의 비판이 현실을 도외시한 지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교회 내 투표소 설치에 "국가가 특정 종교에 종교 선전의 자유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의 3명, 이하 종자연은 교회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이것이 “국가가 특정 종교에 종교 선전의 자유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이들이 특정 종교 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시키고자 헌법소원(2008.2.27), 국가인권위진정(2008.02.13, 2008.02.19), 공직선거법개정 청원 등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종자연은 “다만 ‘부득이한

나선 원칙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 두 차례에 걸쳐 투표소를 설치한 바 있는 서울 개봉동 N교회의 L장로는 “당시 구청에서 장소 협조를 부탁해 허락했던 것”이라며 “평일 낮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공감했고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라는 교인들의 의견도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것을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 한기총-NCCK, WEA와 WCC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NCCK 권오성 총무와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NCCK

### 〈 권오성 총무, 이광선 목사 축하 위해 예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권오성 총무는 3일 오후 2시 총)를 방문, 신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총무는 “취임을 축하

하며 봉사과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 하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제의했다. 이와 함께 올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인 ‘화해’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우리 사회 현 갈등 사안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연구를 통해 대화적인 공동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13년 WCC총회와 2014년 WEA(세계복음연맹) 총회가 한국교회 일치 운동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세계교회에 한국교회를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신학, 신앙의 역동성과 열정을 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류재광 기자>

### 이승헌 대선사 관련 마고상 철거결정 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정... 단군상에도 영향줄 듯

미국 애리조나 코튼우드 지역에 세워졌던 이승헌 대선사 관련 마고상(麻姑, MAGO)란 신라시대 상이 최근 지역주민들에 의해 철거가 결정돼 국내의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단군상의 거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고(麻姑, MAGO)란 신라시대 박제상의 부도지에 나오는 ‘근원이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현대적 의미로 ‘지구어머니’라는 뜻으로 사

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 12미터에 달하는 이 마고상이 지역사회의 혐의와는 다르게 장기간 세워져 있어 코튼우드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열고 한 달 내에 철거를 결정해달라고 지역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지역언론은 마고상이 세워진 곳은 이승헌 대선사가 자신의 사유지를 조금씩 용도변경하여 공

원화(Earth Park)한 것으로 이 장소 지난 3년 동안 토지이용계획서로 이해되는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원과 자체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 사관학교 100주년, “구세군 정신으로 세계 복음화”

구세군사관학교(교장 황선엽 사관)가 개교 1백주년을 맞아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구세군과천영문에서 1백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910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구세군사관학교는 이

군과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계를 품으라’는 제목으로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광 사령관은 “사관학교는 지난 1백년의 역사 속에서 정의롭고 고귀한 미담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일제치하에서 28기 학생 27명이



구세군사관학교의 개교 1백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구세군과천영문에서 드려졌다. © 김진영 기자

### 2028년까지 사관·평신도 1004명씩, 선교사 100명 목표

후 1912년 사관학교로 개칭됐고, 1985년 경기도 과천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83개 기수에서 1700여 명의 사관들을 배출했다.

교장인 황선엽 사관은 개회사에서 “사관학교가 1백주년을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국의 운명이 풍전동화에 놓였을 때 개교를 해 여러 번의 휴교와 폐교를 거치면서도 그 생명을 지켜 조국과 민족에 등불로 자리왔다. 이제 사관학교의 부흥이 구세

신사참배에 항거하며 신앙인의 굳센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 47기 학생들 중에는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한 적도 있었다”고 사관학교의 역사를 돌아봤다.

전 사령관은 “구세군은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이었다. 모든 사업의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날 이 구령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 사관학교에서 사도행전적 인 구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사관학교가 지난 1백년간 보여줬던 위기 극복의 정신과 역동적 선교의 정신은 앞으로도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세계를 선교의 장으로 삼아 사도행전의 비전을 꿈꾸고 실천해 하나님께 바라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관학교는 1백주년 비전

을 선포하며, 앞으로 사관학생들의 학력배경과 분야별 수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원대학교 과정을 설립해 구세군 교육기관으로서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2028년까지 사관 1004명, 평신도 1004명, 해외 선교사 100의 인력개발을 목표로 학교의 훈련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 긴급요청

가난의 빛이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닦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 아이티(Haiti)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 지진 긴급구호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 5. 초기 구호 자금으로 구입될 물품

-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 ◇ 인구 890만명 중 80%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나라.
- ◇ “진흙 쿠기” 로 끼니를 연명하고, 높은 AIDS 감염과 주기적인 허리케인 피해를 입는 곳.
- ◆ 국민의 90%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구호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주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월드비전 직원들은 비축해 둔 구호 물자를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초기 타겟으로 1만 가정에 구호 물자와 응급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에 있는 재난 물류 센터에서 18톤의 구호 물자를 항공편에 실어, 15일 오전 아이티 공항으로 공수하여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50년이 넘는 구호 사역 경험과 이미 갖추어진 구호 활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월드비전 아이티 사역

- ▶ 1959년부터 아이티 고아 돌기 시작
- ▶ 1978 월드비전 아이티 사무소 정식 개설
- ▶ 아이티 전역의 20개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30만 명 아동에게 수혜
- ▶ 52,000명의 아동들, 월드비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받음.

###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 수 있나?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Memo (For) : Haiti Earthquake

# 김준곤 목사 뜻 이어... 성시화운동 '제2의 출발'

## 김인중 목사·전용태 장로, 성시화운동 제2대 총재 취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던 김준곤 목사를 이어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와 전용태 장로(로고스 상임고문)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했다.

3일 안산 사동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 올데이션스홀에서는 2010 성시화 기도회 및 제2대 총재 취임 감사예배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도회와 2부 취임식으로 개최됐다. 김인중 목사는 '성시화로 민족복음화를!(행 19:17-20)'이라는 설교에서 "대한

민국 50여개 도시를 귀신이 쫓겨나고 폭력과 사기, 공갈과 협박이 없어지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한국 기독교가 1970, 80년대 400% 성장했지만 지난 10년간 퇴보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1970년대와 같은 또다른 전도운동, 부흥을 위한 기도와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인중 목사는 "안산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전복음을 안산을 필두로 대한민국 전 도시로 전하기를 협력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의 정성이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모아져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기적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중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김준곤 목사가 펼쳤던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성시화운동, 엑스플로 74 대회 등을 회고하며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취임한 김인중 목사와 전용태 장로는 김준곤 목사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인중 목사는 "이 자리에서니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장로는 "춘천에서 최초로 성시화운동을 시작하신 김준곤 목사님을 훌륭히 저희 곁을 떠나분향으로 가셨고, 아직까지 슬퍼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때에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40여년간 준비해 주신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성시화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

용태 장로는 "성시화운동이야말로 애국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강석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는 축시를 맡았고, 명성훈 목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와 양인평 장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각각 1·2부 사회를 맡았다.

특별기도회 시간에는 '대통령과 위정자, 국가 발전을 위해(이종승 경남성시화운동본부장)', '한국교회 부흥과 신도 회복을 위해(김흥규 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을 위해(이영환 대전성시화운동본부장)', '건강한 가정과 범죄없는 도시를 위해(두상달 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아이티 구호와 소외계층을 위해(변지유 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등을 놓고 3천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김인중 목사는 서울대 불어교육과와 총신대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C.C.C. 총순장을 거쳐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며, 안산동산교 이사장과 교광협 상임회장, 한미준 대표, 한정협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전용태 장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춘천·청주·인천·대구지검장, 중앙선거관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과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재단법인 성시화운동 이사장, 세계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날 총재에 취임한 김인중 목사와 전용태 장로(가운데)를 향해 전 성도들과 성시화운동본부 지역 대표들이 축복을 불러주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외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10년 2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영동교회 교육



크리스천라이프센터의 김수정 연구위원(왼쪽)과 이진우 공동대표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 교회의 사회봉사, '인식'은 95% '실천'은 58%?

###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전문지식과 기술 보완 필요성 지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회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면서도 이에 대한 지식과 교회 여건은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라이프센터(이사장 이문희 목사)는 지난해 전국 목회자 192명과 일반성도 296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 4일 서울 논현동 서울영동교회(담임 정현구 목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5.9%가 교회는 사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사회봉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전체 30.2%(58명)에 불과했고 사회봉사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여건도 평균 3.1의 수치(여건이 최악일 경우 1, 최고일 경우 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11년 정년을 남겨두고도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은 최 목사는 이후 다일공동체 사회봉사활동과 영성훈련 인도에 전념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4억원도 다시 교회에 헌금해 귀감이 되고 있다. 다일교회는 이를 '최일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애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회는 최 목사를 원로목사라는 말 대신 설

나 현재는 그만됐다고 한 응답은 17.7%였는데,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34.8%)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사회봉사 사업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13%)는 것과 교회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17.4%)는 것도 그 이유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를 실시한 김수정 연구위원은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다면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과 목회자 및 교인이 직접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조사결과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응답(2.1%)이 저조하므로 후자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회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재정 마련 ▲시설지원 및 인적자원의 확보 ▲목회자와 교인들의 전문 지식 확보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마련 ▲지역 공공기관 또는 타교회와의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 최일도 목사 다일교회 조기 은퇴

'밥과' 사역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54)가 다일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조기 은퇴했다.

11년 정년을 남겨두고도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은 최 목사는 이후 다일공동체 사회봉사활동과 영성훈련 인도에 전념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4억원도 다시 교회에 헌금해 귀감이 되고 있다. 다일교회는 이를 '최일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애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회는 최 목사를 원로목사라는 말 대신 설

〈이대웅 기자〉

## 개혁 김병호 총회장, 개신측 박윤식 목사 신학검증 비판

지난해 말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발표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신학검증에 대해

다"며 "개혁교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 담화문 발표하고 당사자들의 근신 등 요청

장 개혁 김병호 총회장이 1월 30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개신대학 발표에 대해 "본 총회 목회자들과 전국 교회에 대단한 충격과 당혹감을 심어 주었

김 총회장은 이어서 전국교회의 충격과 혼란을 직시한 총회 임원들은 지난 1월 28일 긴급히 모여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표는 총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우선 밝혔다"며 총

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수습과 질서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총회장의 입장조사와 소신, 총회의 수습방안을 전국교회에 알리고자 총회장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호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개신대학에 당사자들의 일선 후퇴와 근신 요청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만약 학교당국이 총회와 총회원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금년 가을 총회에서 신학교의 총회 인준 철회문제도 상정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류재광 기자〉

## 월드비전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 동란의 고아와 미망인을 도우면서 태어나 현재는 전 세계 1백 여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 월드비전.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에서 서부 지역 디렉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 디렉터
- 모집인원: 1명
- 모집기간: 2010년 2월 30일까지 서류접수
- 필수자격조건:
  1. 신실한 크리스천
  2.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3. 미국내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4.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 구사자
- 우대사항:
  1. 기독교 NGO 및 연합회 활동 유경험자
  2. NGO 마케팅 실무 경험자
-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 조직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 능력
  2.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한/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온라인 시스템 포함)
  3.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
  4.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5. 타주 출장 가능한 자

### 채용절차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영 각 1통)  
(관련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 포함)
2. 담임 목사님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1. 1차 서류접수 jikim@worldvision.org
2.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지, 월드비전US 웹 사이트 (worldvision.org) 온라인 접수
3. 개별 면접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2월 16일 (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청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 목표가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삶으로 전향하라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지난 5일(토)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열린 리빙위터 청년연합집회에서 “목적 중심의 삶에서 목적 중심의 삶으로 전향하라”고 강조하며 300여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요 21:15-17)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권 목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낚시하면서 살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며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고 강조한 권 목사는 “부모세대가 심어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꿈을 놓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는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일

권 목사는 “베드로를 다시 일어난게 했던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힘이었다”고 말하며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

체험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 목사는 “목사로써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싶다. 치유의 능력도 닮고 싶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도 닮고 싶다”라며 “그러나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재기시키신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에 베풀어 나 하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지난 주말 청년연합 리빙위터연합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초청 리빙위터 집회,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

준 것이 목표중심의 삶이다. 그러나 의사가 연봉만을 세며 산다면, 병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명예와 권력만을 좇으며 나라와 민족은 뒷전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고 킹덤 드림을 가지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는 힘을 잃지만,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고백이자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그 세 번의 사랑의 물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는데 그럼 된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잖니.’ 예수님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이 되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5일과 6일 양일간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리빙위터청년연합 집회는 애틀랜타교회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총 12개 이상의 지역교회 청년부들이 연합해 개최됐다.

(권나라 기자)

## ‘치안 불안해 의료 사역 펼치지 못한 시테 솔레이지만’

### KPM, UN군 보호아래 300여명 환자 치료



의료사역 펼치는 KPM

KPM(Kingdom Pioneer Missions)은 1월 29일 떠나 2월 3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지진으로 많은 부상자를 낸 아이티에 의료 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사역은 수도 포르투프랭스다음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시테 솔레이(Cite Solei)에서 진행됐다. 이 지역은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지진 이후 의료 사역을 펼친 이가 아무도 없을 정도이다.

선교팀은 현지 박병준 선교사의 추천으로 그 지역에 들어갔다. 치안이 불안해 UN 소속 미군은 탱크까지 동원해 중무장한 채 사역팀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었고 사역 하는 동안도 하루 종일 보호했다.

이번 사역에는 의사가 7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아이티인 통역관 1명이 동행해 하루 300여명의 환자를 돌봤다.

아이티에 다녀온 이윤희 장로는 “저희가 간 시점에는 지진 관계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치료를 받은 상태여서 지진 관계 환자는 10%정도였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동병원에서 1차 치료는 진행됐고 사역팀은 2차 치료를 담당했다.

이 장로는 “아직도 상황이 많이 불안하다. 외국인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의료팀, 후원팀이 넘치는 상황이라 도움은 필요하지만 질서가 잡히지 않아 그냥 돌아간 팀도 있었다”고 전했다.

명광하 팀장은 “원래 어려운 나라가 지진으로 더욱 힘들어져서 마음이 아팠다”며 “많은 준비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명 팀장은 “지진으로 인한 급한 환자 치료는 끝났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망해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어 그들이 그 땅을 재건하게 도울 수 있나 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지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과 희망,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너무 피해가 크고 충격을 받아서인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쇼크 상태에 있다고 했다. 명광하 팀장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명광하 팀장은 “이런 일이 없어도 도와야 했는데...”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구석구석을 도와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윤희 장로는 “아이티는 개신교 비율이 26%, 천주교 75%, 부도교는 100%이다. 개신교, 천주교인도 부도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 의식에서 깨우고 그 사상을 씻어내고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지혜롭게 선교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오상아 기자)

## 뉴프론티어초대교회, 창립 감사 예배

### 류인현 목사, “30년 후 다민족 성도로 세계 선교 기대”

뉴프론티어초대교회(류인현 목사)는 7일 오후 4시 30분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뉴프론티어초대교회는 맨하탄의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예배공동체로 4년 전 뉴저지 초대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시작돼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뉴저지 초대교회의 전략적 파트너십 교회로 독립했다.

이날 기도한 장승구 장로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을 찾고 비전을 갖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기를, 사랑의 생명나무가 맨하탄에 뿌리내려지기를 기도했다.

런던 유학 중에 영상으로 메시

지를 전한 송용원 목사는 “단순히 창립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민족 구원을 위한 미래 모습을 미리 보는 기쁨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본문으로 ‘친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규삼 목사는 결혼예배 주례를 썼을 때의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전하며 “결혼예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결혼한 후의 생활이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4년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목사는 “남녀가 다르듯이 장년과 청년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하며 잘 맞춰가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목사는 “예루살렘교회가 부흥했다 핍박받아 쇠퇴한 역사가 있



당회 역할을 할 운영위원회 멤버들. (오른쪽 네번째)한규삼 목사, (왼쪽 네번째)류인현 목사

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이방인 선교에 힘쓰지 않았고 가진 것을 내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디옥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던 교회였다. 부흥할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리더들을 다 내어놓고 파송했다”며 “뉴프론티어초대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성장할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말고 재물, 인력

등 여러 가지를 다 내어놓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류인현 목사는 “세우고 보내는 디아포라스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또 20-30년 후에는 다민족 구성원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큰 비전을 갖고 있다. 올 한해 밀그림을 구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센라파엘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센라파엘 한인장로교회는 1983년 부터 P.C.U.S.A 소속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합니다.

- 자격:**
- 1) PCUSA교단소속 혹은 PCUSA교단 Transfer가 법적으로 가능한분.
  - 2) 정규신학대학 M.Div 이상 학위 소지한분.
  - 3) 담임또는 부목사로서 4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분.
  - 4)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통하신분.
  - 5)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국과 영문)- www.pcusa.org/clc에서 P.I.F forms
  - 2) 최종학력 증명서
  - 3) 신앙 고백 및 목회철학 1통(한국과영문)
  - 4) 목회비전 1통
  - 5) 최근 6개월내 설교 CD 2부.
  - 6)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통-가족사진 1매(6개월이내)
  - 7) 추천서 4통(4통중 3통은 목회자로 한정하며, 추천자 밀봉날인 필수 혹은 추천인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추천인 4명의 Contact Info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먼저 서류를 접수하신후에, 추천서는 추후에 보내셔도 됩니다.(7일안에)

**기타:**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선임원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김일 장로(415-491-1932)

### 제출서류 마감및 주소:

1. 마감일 없음, 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검토를 시작하여 담임 목사를 선정할것임.
2.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pcsanrafael@yahoo.com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고려대 한성열 교수 시카고한인교회 집회

중년의 당신, 위기인가 기회인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겪는 "이유 없는 반항"에 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중년의 위기"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늙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늙음을 거부하지만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늙음의 현상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때가 바로 중년이다.



열강 중인 한성열 교수

확률은 8% 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직장인이 사장이나 임원을 꿈꾸며 평생을 직장 생활에 바치지만 얼마나 그 꿈을 이루겠는가? "청년기에는 자녀를 키우고 그 꿈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가 적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자신의 늙음을 직면하며 내가 과연 그 꿈을 이루었는가, 그게 가능한 가란 현실적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건강한 중년을 위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년의 위기를 두번째 삶을 시작하는 기회로 보라"고 조언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겪어 온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도 의연 중에 알고 있다. 자신이 꿈을 갖고 하던 일을 결국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교육과 후진 양성"에 삶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교수는 "중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후진 양성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일은 중년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고, 평생을 바치며 깨달은 삶의 노하우를 후진에게 전하게 한다. 한 교수는 "적용 가능한 대안을 하나 말하자면, 중년의 성인은 자신이 수십년간 자녀를 키운 노하우에, 사회 생활을 하며 얻은 인생 경험, 거기에 더해 죽음을 고민하는 가운데 생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앙심을 갖고 있다. 이들을 신앙의 후진을 양성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사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시편102편을 읽은 후,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도 중년의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다윗의 해법도 한 교수가 말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다"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늙어감을 인정한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에서 그 역시 좌절과 죽음에 직면했으며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면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에서 자손들, 후진들을 통해 자신의 꿈이 이뤄질 것임을 믿는 모습을 보인다.

신앙과 삶의 성공, 품성에 달려 있다

성경에서 찾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훈련, 체득



품성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다

지난 6일 글렌뷰한인교회에서는 인간의 품성 개발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품성과 각자의 삶에 관한 간증을 나누었다. 한국품성개발원 대표 안주영 박사가 지난달 시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 품성개발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2차례에 걸친 품성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자신이 받은 훈련에 기초해 3주간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고 그 간증을 나누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다.

안 박사는 1989년 미국에서 목회하던 당시 품성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고 이것을 1995년 한국으로 전파한 장본인이다. 그는 성경에 근거한 품성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것을 교회 내에 훈련 프로그램으로 도입시켜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그는 인간이 갖는 품성을 49가지로 나누고 이 49가지들 모두 성경 속에서 찾아내 정리했다. 이 49가지 중 7가지들 제

외한 42가지는 모두 마태복음 중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췌했다. 겸손, 온유, 기쁨, 후함, 사랑, 책임감, 절제, 진실성, 경의심, 창의성, 성실성, 믿음, 겸약, 솔선, 분별력, 신중, 민감, 용단, 자비, 지혜, 담대, 경청, 순종, 공경, 덕성, 포용, 정의, 만족, 용서, 운운 등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품성 49가지에 대한 학습과 체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훈련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성경, 혹은 성화에 관한 프로그램이라 설명할 수도 있다. 또 품성이 되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사회 속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도 간과하지 않는다.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훈련 후, 참석자들은 49가지 품성에 근거해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과제로 받았다. 삶의 현장에서 상대방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돌아온 이들은 "칭찬을 통해 오히려 내가 큰 기쁨을 느꼈다" 등의 간증을 쏟아 놓았다.

제일교회에서 열린 간증집회 성황

노병천 장로 간증집회가 MCTS TV 주최로 지난 5일부터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려 7일 끝났다.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한 간증부터 8천명 장병들에게 복을

노병천 장로 웃고 우는 간증 은혜 가득

을 전한 일화까지 군인 시절 노 장로의 전도 활동에 관한, 웃고 우는 간증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군인들에게 전도한 비법은 다른 전도자들이

말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도가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대장 시절 장병들을 매일 아침 연병장에 집

합시켜 자신이 대표 기도하던 이야기, 이 사건으로 인해 타 종교 군인들의 반발을 산 일, 이 반발을 기지를 발휘해 넘긴 일 등을 재미있게 간증했다.

특히 7일 저녁 열린 마지막 집



노병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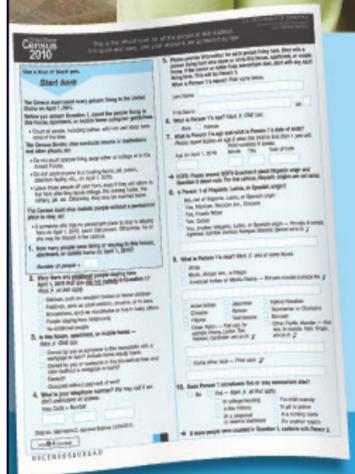
회에서는 노 장로의 연병장 기도를 상부에 보고해 문책 당하게 한 장본인이 나와 잠깐 간증했다. 그는 당시 그 대대의 불교신자회장으로, 노 장로가 늘 못마땅했지만 결국 노 장로의 장병들을 향한 사랑에 감동해 기독교에 마음 문을 열게 됐다고 간증했다.

<김준형 기자>

Advertisement for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featuring various toner products, services like custom screen printing, and a special sale on SKMAX Toner with a 60% discount.

Advertisement for GLOBAL VISION BANK (글로벌비전뱅크) promoting car donation programs. It highlights that donated cars are used as tools for ministry and are sold to support church activities.

#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시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http://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모양도 똑같고 색상도 똑같은 것 같은데 특정한 상표가 붙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값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제품을 말합니다. 이런 명품제품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품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별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명품판매 전략이 바로 '구별된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 속에는 명품인생을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얻게 될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명품인생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땅입니다.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곡물과 채소, 그리고 열매들은 애굽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실제전 같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은 이곳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명칭에 함당할가라는 의혹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옥한 애굽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구별된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안할 때보다 반드시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할 때보다 반드시 더 건강해 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할 때보다 더 큰 명예를 얻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입문토록 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이란 특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Dirtiness is out of the pla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언뜻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칠 때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우

리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발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서는 뒹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구별함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별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명품제품으로 치장되었다고 인정하며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품인생은 구별된 자리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구별됨을 특권으로 여기며 구별된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백순 칼럼



백순 장로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요즘은 한국사회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로 인하여 뒤숭숭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판결을 한 판사의 자격문제뿐만 아니라 사법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가치판단의 전복을 내리고 제창하고 떠드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성경말씀이다.

악과 선, 흑암과 광명, 쓴 것과 단 것 등을 그렇다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고 주장, 제창하고 실천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주장, 제창하고 실천해 나아가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결국 멸망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의 경우 '폭력이라는 악'을 '무죄라

“악을 선하다 하며”

부의 개혁론까지 들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하지만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건전한 양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문제가 된 판결은 2가지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사했던 폭력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법 논리로 무죄로 인정된 판결이다. 강기갑 의원의 의사당내 폭력행사는 누구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현행법에 준하는 범법 행위였다.

두 번째는 MBC PD수첩이 작년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같이 허위 보도하여 엄청난 쏘탈시위의 파장을 일으키어 국정마비상태에 까지 일으켰는데, 그 보도는 과장이긴 해도 허위는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한 판결이다. PD수첩의 자료를 직접 번역했던 관계자가 허위인 것을 직접 밝혔는데도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이다.

그러한 재판판결의 실례들이 한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진보대 보수라는 이념논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제변영과 첨단기술개발이라는 후기현대주의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혼란 상태를 당면할 때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머리에 떠오른다.

고 선'하다 하고 판결하여, 전복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MBC PD수첩관련 판결의 경우 '허위보도인 흑암'으로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광명'을 삼는 판결을 하여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광우병논란으로 인한 쏘탈시위의 경우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미국소의 단 것'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소의 쓴 것'을 삼는 거짓보도를 하여 앞뒤가 바뀐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이념논쟁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후기현대주의문명이 경제적 및 사회적인 풍요와 함께 따라오는 흐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념논쟁과 후기현대주의문명은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과는 분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가치판단이 정치적인 이념논쟁과 문화적인 후기현대주의문명으로 인해 휩쓸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혼돈과 타락의 길로 빠져 들게 될 것이다.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을 어떻게 확립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사랑)하고 두려워’할 때에 인간은 올바른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을 확립할 수 있고, 이념논쟁이나 후기현대주의문명이 흔들리지 않는 선진일류사회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창원 칼럼



이창원 교수  
한양대학교

뜻밖의 사건, 사고이다. 반면, Risk는 손해를 입을 위험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알고 스스로 무릅쓰는 위험으로 모험적 성격을 가진다.

Risk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목적에 대한 가능성의 결과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위험은 리스크(risk)를 의미이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시장위험(market risk)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그 조직이나 개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 및 국가들이 리스크 관리를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국가적 위상이 곤두박질하고 있고, PIGS국가들은 국가 신용 위험상태에 빠져들고 있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득이 되는 결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리스크를 확인하고, 측정하며 우선순위를 매긴 후, 부정적이고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조정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이

리스크를 넘어서

위험(危險)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실패하거나 목숨을 다치게 할 만한 또는 안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 표현이 약간씩 다르다. Danger는 위험, 위난의 뜻으로 가장 일반적인 말이고, Peril은 상처를 입거나 생명과도 관계된 긴박한 경우이다.

Hazard는 peril만큼 긴박성은 없지만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만한

및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이 있다.

시장위험은 환경에 대한 위험으로 기업의 가치가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운영위험은 경영상의 위험으로 비즈니스를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위험, 즉 부적절한 비즈니스 전략, 관리자의 업무상의 실수, 전산 사고, 고객 불만족 등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신용위험 등이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나 개인에게도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으며,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위험요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요다자동차는 각종 운영위험에 직면하여 기업의 신뢰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겪고 있다. 한국은 상존하는 남북대치와 내부갈등으로 편할 날이 없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운명은 절망적으로 또는 희망적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잘 관리하면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최소화시키고

러한 리스크는 오히려 쓴 양약이 될 수 있다.

실패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방치하기도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결국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나서야 후회한다는 것이다.

리스크를 넘어서는 첫 출발점은 올바르게 건전한 정신을 가정에서 시작된다.

100원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o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이성호 칼럼



이성호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 1. 최근의 두 판결들

최근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 “기업이 선거 광고에 돈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특수 이해집단의 돈이 선거판에 들어올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하자, 알리토 대법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하면서 혼잣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국 한국에서는 강기갑 의원의 공무집행 방해죄 기소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것을 놓고 우리 법연 구회의 좌편향 판결이라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 2. 법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수결의 진리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법은 객관적인 참과 거짓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법은 다수결로 진리를 가립니다. 대법관이 9 명이면 5대 4로 어느 쪽이 진리인지 정해집니다. 나에게는 한쪽 결론이 정말 명백해 보여도 다른 대법관에게는 반대 결론이 너무 명백하게 생각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다수결 진리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긴 쪽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주와 자본가가 잡자기 나쁜 사람들

이 됩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공산당이 사형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법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싸우고, 사형 집행장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 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을 법의

##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름을 빌은 살인이라고 규탄합니다.

\* 생각할 질문: “힘이 정의”라고 한 궤변론자들의 말은 정말 궤변입니다. 이에 반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고 사약을 받고 죽은 소크라테스는 성인입니다. 법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다수결의 진리라는 말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새겨들여야 할까요?

#### 3. 법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

입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경우는 더욱 더 정치적인 힘의 균형에 좌우됩니다. 간통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호주제를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하는 것 등을 보면 됩니다. 이민법도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기록이 없이 세금 납부하고 5년을 지나면 영주권을

을 줄 것이냐 아니면 모두 추방할 것이냐는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진리의 문제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민국의 담당자의 유권 해석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 4. 그래서 법은 개정과 폐지도 가능하고 입법과 제정이 가능

합니다. 때로는 유권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법으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법과 입법의 차이입니다. 사법부의 법 해석이 입법 기능까지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사법론을 믿는 판사들은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견제할 유일한 방법은 입법부에서 제한적인 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강기갑 의원 유죄를 내릴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민국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수민족들이 단합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있는 법은 존중해야 되지만,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법은 개정과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 법을 개정해서 투표권을 주고, 여성 차별법을 개정해서 참정권을 준 것입니다. 이처

법 개정과 제정이 가능한 입법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 법인가?”

#### 5. 법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과 이민자나 유학생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의 법이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는 법을 고치는 신앙적인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법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정말 중요하고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인가를 묻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긴장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이 없는 사람들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 박성근 칼럼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라는 말이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 소장이며 유럽미래학회 자문위원인 롤프 옌센(Rolf Jensen)

나라 오히려 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드림 소사이어티란 한마디로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당돌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와 기술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을 때 사는 맛이 납니다. 역설적으로, 최첨단 기계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갈망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정취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해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

## 드림 소사이어티

이 1999년에 발간한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통신혁명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각종 기술이 세상을 집어 삼킬만한 기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롤프 옌센은 영동하게도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과 이성의 시대가 아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0-25).

아직 “드림 소사이어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가슴으로 살면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 김성광 칼럼



김성광 목사  
강남교회-강남금식기도원

‘개처럼 벌어서 증승처럼 써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더럽고 천한 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돈을 쓸 때는 보람되게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마치 돈을 벌 때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사기, 도둑질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돈만 벌라는 식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태도까지도 반듯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려고 할 때도 정당당하게 일하고 노력해야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한 이

후에도 고귀하게 써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과 불의로 이룬 재물과 성공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잠21:6. 거짓된 재물과 성공은 안개처럼 곧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끝은 비참합니다. 뗏뗏하지 못하게 이룬 성공과 돈은 절대로 정

##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라

승처럼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정부패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정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대부분의 실패는 정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이룬 성공은 잠시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패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십시오.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하고 정직하게 짓는 건물은 공사기간이 한참 걸려도 완성되면 오래도록 튼튼하게 보존되지만, 부실 공사로 지은 건물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마

찬가지로 정정당당한 성공은 오래도록 빛을 보지만, 거짓으로 이룬 성공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에서 “대통령도 성공하려면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무능했던 인물도 있었고, 유능했던 인물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법과 규칙을 지킨 사람은 비록 무능한 대통령이 라 할지라도 대통령직을 무난히 완수했고, 유능했어도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실패하고 뒷날 후회스런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잠시 실적이 좋지 못해도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점이 바로 ‘정직’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강철회사를 세운 강철왕 카네기는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한다.

피와 땀을 흘려 공병하게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도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매리케이 화장품 창립자 매리 케이 에쉬도 “정직은 모든 성공의 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속임수를 쓰면 처음에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정직한 사람만이 결국 큰 성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미국의 템플대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러셀 콘웰 박사는 백만장자 60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번 한 말은 꼭 지키고, 심지어 빌린 책조차 솔직하게 돌려줄 정도로 신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설 땅이 없어집니다. 신용을 묵습처럼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성공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길**  
EVANGELISM DYNAMIC POWER IN BIBLE

많은 사람들이 교회부흥과 성장이 어렵다고 진언하지만 해결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진도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하며 어려움수록 복음 진리의 핵심 내용을 언제나 어디서나 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도 통령입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민경설**  
민경설 저음 / 232면 / 신국판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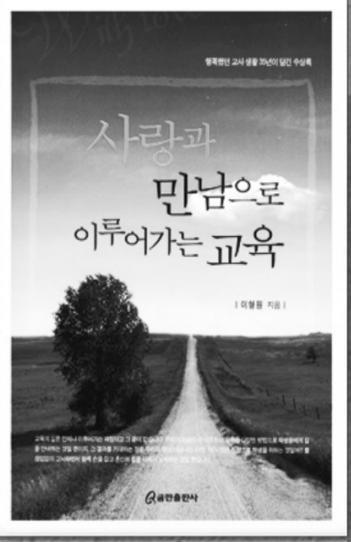


**설교학 실천**

성도를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설교 신도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선포할 수 있도록 구성! 실천 설교론에 호응하는 저의 작성법과 본문 설교 작성법의 원리를 분석!

한국성경전문학교 대표 **안종필**  
안종필 저음 / 480면 / 신국판 무선



**사랑과 만남으로 이루어가는 교육**

행복했던 거창고와 셋별중학교 교사(교장) 생활 35년이 담긴 수상록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이형원**  
이형원 저음 / 372면 / 신국판 무선

**주님을 찾아가는 길**  
전도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설교학 실천**  
성도를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사랑과 만남으로 이루어가는 교육**  
행복했던 거창고와 셋별중학교 교사(교장) 생활 35년이 담긴 수상록

# ‘개신교의 로마’ 쥬네브에도 베드로 성당이 있다

##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쥬네브의 종교 개혁 관련 유적들

### 1. 베드로 성당

쥬네브와 로마는 공교롭게도 ‘베드로’라는 이름의 성당을 갖고 있다. 쥬네브는 칼뱅의 명성을 크게 알린 곳이지만, 칼뱅 역시 쥬네브를 ‘개신교의 바티칸과 처럼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였다.

칼뱅은 쥬네브를 개혁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쥬네브에서 칼뱅의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레만 호수의 거대한 분수, 국제 연합 본부 그리고 칼뱅이 목회했던 베

뎀이다. 이 그림은 쥬네브를 배경으로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성당에서 제거는 되었지만, 다행하게도 폐기되지 않고 쥬네브 박물관에서 여전히 이 그림을 볼 수 있다.

베드로 성당이 있는 현재 위치는 4세기 초반부터 종교적 건물이 있었던 곳이며, 500년경에 그 건물은 파괴되고 만다. 그리고 6세기경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 다시 세워졌다가 12세기에 로마네스크 - 고딕 양식의 새로운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 성당이 완공하기까지, 예산

그러나 베드로 성당은 길이 70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당의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다.

### 2. 종교 개혁자의 벽

칼뱅 출생 4백주년과 쥬네브 대학의 모체인 아카데미 건립 3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개혁자의 벽’이라 불리우는 기념물을 만들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서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예 회장이 된 국제 위원회가 조직된다. 국제적 지원으로 자금이 조달되었고, 스위스 건축

자이인 벨기에 르네(Tournai) 출신의 마리 땃피에르(Marie Dentiere)도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두 조각가는 프랑스인이며 칼뱅의 사촌인 올리베탕(Olivetan)과 영국의 크랜머(Cranmer)의 석상을 만들기로 하였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 엄청난 규모의 종교 개혁자의 벽 공사는 1917년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을 때는 자신의 참여를 발표했던 독일의 황제는 끝내 오지 않았다. 중앙의 4명 개혁자상 옆으로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정치가로 개신교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싸운 남자들, 그러나 무엇보다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인물들이다. 프랑스 종교 개혁을 위해 일한 콜리니 제독(L'amiral Coligny), 네덜란드의 기욤 르파시툼 (Guillaume le Taciturne) 그리고 독일로 망명한 위그노들을 숨겨 보호했던 브란트부르크의 프레데릭 기욤(Frederic-Guillaume de Brandebourg)의 석상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신대륙을 위해 일한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대영 제국의 올리비에 크롬웰(Olivier Cromwell) 그리고 헝가리의 Istvan Bocskay의 석상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익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이 석상들은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석관 그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1535년 쥬네브 종교 개혁의 표어였던 "Post tenebras Lux"라는 글귀를 벽에 새기게 되는데, '어둠 이후 빛'이란 뜻으로 의역하면 '어둠 이후에 빛이 온다'는 의미이다. 벽면 양쪽 부분에는 루터(Luther)와 쯔빙글리(Zwingli)를 기억하기 위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화강암이 있다. 2002년 12월 3일 종교 개혁 축제일에 이 기념비에 3명의 이름을 더 추가했다. 뵘에르 발도(Pierre Valdo), 존 위클리프(John Wyclif), 안 후스(Jean Hus), 그리고 최근에 개혁자 Froment의 부인이며 종교개혁 역사 가운데 최초 여성 신



칼뱅이 목회했던 쥬네브의 베드로 성당

드로 성당과 빠스피옹 공원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벽만이 볼 수 있다.

칼뱅은 파렐의 요청으로 1536년부터 베드로 성당에서 일주일에 수 차례 성경을 갖고 설교했던 곳이다. 이 성당은 칼뱅이 도착하기 전인 1535년에 쥬네브 공화국 위원회에 의해서 미사를 폐지하면서 개신교 교회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당 내부의 가톨릭적인 가구들과 걸상들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성당 정면의 가톨릭적인 요소들은 다 철거되었다. 제거된 작품 가운데는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 Conrad Witz (1444년)의 고기 잡는 기적의 그림은 미술사에서 풍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요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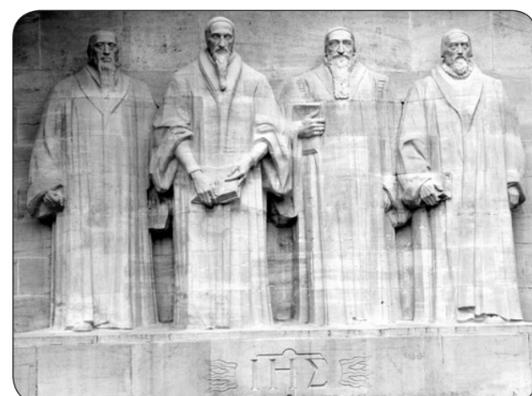
이 부족하여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다가 13세기에서야 마침내 최종 형태의 모습으로 완료된다. 성당의 탑은 13세기 말에 세워졌으며, 15세기 초에 성당 옆에 부속 건물이 추가되었고 외경 관련 도서들이 비치되었고 장례 예식장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현재 베드로 성당은 종교 개혁 시대 때 내부의 일부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18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건물 서쪽 부분의 붕괴 방지를 위한 건축물을 덧붙이면서 원래의 모습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아 대리석으로 된 6개의 기둥과 기둥으로 바쳐주는 거대 상판이 만들어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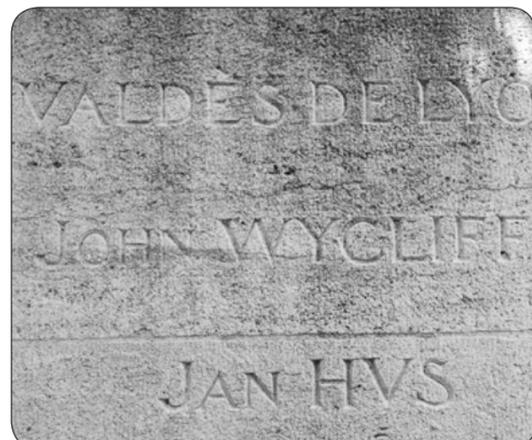
가들과 2명의 프랑스 조각가들이 콩쿨에 당선되어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첫 번째 돌은 칼뱅의 생일인 1909년 7월 10일에 놓여지게 되며, 바스피옹 공원에 위치한 고대 도시의 벽면을 이용하게 된다. 먼저 부르고뉴 지방에서 가



쯔빙글리를 기념하는 화강암



높이 5미터의 종교 개혁자 석상



루터 기념 화강암 다른 면에 기록된 개혁자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 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          |             |          |
|----------|-------------|----------|
| 프라이머 생등심 | 프라이머 꽃살     | 오리고기     |
| 프라이머 갈비살 | 초이스 찜갈비     | 흑염소      |
| 샤브 샤브    |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 돈까스/비프까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 1-800-489-8775

##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 20~30야드 더 멀리 Carbite

맞춤 드라이브

### 파격 SALE

~~\$500~~ → \$149  
~~\$300~~ → \$99

환.불.보.장  
20~30야드 더 멀리  
다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EAGLE GOLF 213-858-7979

##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 컴퓨터의 모든것

Computer & DVR

- 출장수기 once \$29, monthly \$50
- 컴퓨터 판매 - DVR 판매, 수리
- 인터넷(Virus) 문제해결 - 4ch DVR \$599부터

James Oh 213.814.9004 / www.comdvr.com  
3200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 반값으로 할 수 있다

### 차바디수리 50%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TEL. (213) 265-8485 / (213) 388-4464  
Main Office :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한국에서 미국으로

###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 블라인드 카튼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모든 자동차 유리 두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둘 맞는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T. 213-284-4111

## AMAZING 에어컨백화점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망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국 전역 LA, 샌디, 휴스턴, 상하이

7년 연속 에어컨 1위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 K ONE Plumbing

-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리파이팅 무료 견적
-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 Joseph INTERIOR

인테리어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이트  
· 페리오, 텍크, 웰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물딩, 페인팅 (아우스, 경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 헬렌데일지역 별장 휴양지 가족방문시 방문료 제공

323.788.8689 김메스더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2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장거리 국제전화까지 무제한**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24.99 /월** (TAX 포함)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여카운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X가 없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지금 가입하시면,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iTalkBB**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가입하시면,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30일 환불 보장]**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사역에 있습니다”

## The 3rd Family Ministry Conference

가정사역의 불꽃을 지피는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미주 한인 교회들의 가정사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 교회 실정에 맞는 가정사역을 하도록 돕는 컨퍼런스입니다. 제 1,2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21세기 성공적 목회를 꿈꾸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컨퍼런스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초청합니다.



### 주강사 소개



**김만풍 목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담임  
 남침례신학교(SBTS)  
 /보이스 성서대학, 상담학  
 /예배학 객원교수  
 국제전도특별 북미주 한인본부 대표  
 /미주 코스타 전대표/현이사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목회심리학박사)  
 고든콘웰 신학교 졸업 (목회상담학 석사)  
 총신대학(문학사)/대학원 졸업 (신학석사)



**주수일 장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한국대학성 선교회 회장  
 칠성섬유 외 5개 중소기업 회장  
 온누리 교회 사역장로  
 극동방송 "가정 칼럼"  
 "가정 행복 강의" 고정출연  
 저서: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국민일보)  
 진새골 사랑 이야기(두란노)  
 현 사회복지 재단 "사랑의 집" 대표



**정정숙 박사**  
 패밀리 터치 원장  
 교육, 상담 및 가정사역 전문  
 가정생활, 교회 교육 세미나 주강사  
 교육 및 가정 칼럼니스트  
 객원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  
 철학 박사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 & Ph.D.)

**날짜** 3월 8일(월) ~ 10일(수) 9:30 am ~ 5:30 pm

**장소**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교회)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              |             |  |
|--------------|-------------|--|
| <b>주주 등</b>  | <b>재관 록</b> |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 사역에 있습니다!<br>패밀리 터치<br>패밀리 터치<br>(Family Touch)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 Tel: 201-242-4422   |
| <b>참가 대상</b> | <b>참가 비</b> | 담임 목회자, 부사역자들과 가정 사역에 관심있는 평신도<br>\$ 180 (2월 10일 마감), \$ 200 (2월 27일 마감), \$ 220 (당일 접수)   |
| <b>강사</b>    |             | 김만풍 목사, 주수일 장로, 정정숙 박사, 김충정 박사<br>이문희 박사, 이수일 박사, 안선아 소셜워커, 김신호 회계사<br>이규재 이사장, 오광복 소장, 오옥희 목사, 이은경 사모   |
| <b>목적</b>    |             | 1. 21세기 목회에서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운다.<br>2.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br>3. 평신도 가정 사역자를 훈련한다.<br>4. 지역교회의 현실에 맞는 가정사역을 시작하도록 돕는다.<br>5. 상담가, 사회복지사, 가정문제 전문가들에게 지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 <b>주제강화</b>  |             | 목회와 가정사역, 그 현재와 미래<br>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사역, 가정사역을 위한 파라다임 쉬프트<br>가족 상담 현장 리포트, 구원의 완성과 가정사역<br>가정 사역 커리큘럼과 자료  |
| <b>선택강화</b>  |             | 목회 상담, 부부사역, 부모 사역, 시니어 사역, 우울증 및 분노 치유<br>세미나, 청지기 재정교실, 성격 이해 세미나 : 에니어그램, 성격 이해<br>세미나 II: M. B. T. I, 가정 폭력, 이혼회복사역, Prepare & Enrich (예비 커<br>플과 커플 상담) 전문 가정 사역자 훈련, 사랑의 대화기술 (Mastering<br>the Mysteries of Love),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상담방향<br>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

### 후원

프라미스 교회, 찬양 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소망 장로교회, 효신 장로교회, 퀸즈 중앙 장로교회, 뉴욕 새교회  
 뉴욕 지구촌 교회, 뉴욕 초대교회, 스피디 인체, 교회넷, 기독교 뉴스, 기독교 일보, 미주 기독교 방송, 아멘넷, CTS USA